



유재석의 육계사양관리 핵심포인트

5월

우리나라 계절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5월은 육계 사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육계(실용계) 계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계절 전천후로 육계사육을 하고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계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육계사육의 기본이 되는 계사단열수준, 관리자의 사양관리능력, 질병발생전 적절한 대처능력, 환의 설치 및 용량, 육추기간 동안의 관리방법 등 육계사육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들이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다.

5월은 이러한 환경적인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육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바로 호흡기 질병발생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호흡기 질병발생은 연중 문제가 되는 질병이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환절기나 주야간 기온 차가 요즘처럼 15℃ 이상 될 경우 육계에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호흡기 질병발생은 매우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다.

따라서 호흡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1. 호흡기 발생예방

필자가 동일 계군의 병아리를 입추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농장의 관리형태에 따라 호흡기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종계장을 방문해보면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반 여건상 일부는 호흡기발병 원인체인 마이코플라즈마균이 입추당일 농장에 도착되는 병아리와 함께 모체로부터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육추실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충분한 육추 준비가 안되어 관리가 부실하다면 호흡기 균인 마이코플라즈마균이 발현되는 것이고 육추실 환경이 양호하면 그 균이 보균만 하지 발현이 안되고 억제된다는 의미이다. 육추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란,

- 육추 준비 부족
- 육추실 크기 부족(밀사, 기준은 150수내외/평)
- 물을 못 먹거나 너무 늦게 먹음 - 급수기부족 - 탈수(제일 문제됨)
- 낱플 급수시 높이조절 실패
- 직접열풍기로 인한 유해가스 발생 - 불완전 연소 - 산소부족
- 계분 재활용 - 암모니아가스 발생 - 입추시 평균 25ppm 정도 되었음

- 너무 낮거나 높은 육추실 온도
- 습도부족 - 건조함(5월 달에도 강제로 습도 65% 이상 유지필요)
- 섯바람 - 5월 달은 계사 밀폐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음
- 아주 얇은 깔짚
- 육추실 밝기(20lux 이하)



이러한 계사 환경 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병아리가 입추된다 해도 15일령 전후에 호흡기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환경요소들이 적절히 조치가 된다면 초생추의 질이 약간 불량해도 호흡기 발생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출하성적이 병아리 품질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5~6월에 입추하는 농장에서는 이점을 관리주안점으로 두고 관리하면 호흡기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상기온에 대한 준비

2~3년 전부터 겨울철 폭설이 내려 피해를 보고있고 여름철에는 폭우가 내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봄, 가을 역시 이상기온으로 인한 육계사육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니 조치가 가능하지만 5~6월 달에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다는 예보가 있고 실제로 자주 예상치 않은 고온 때문에 열사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리미리 더위에 대한 흰 확보를 해야겠고 차광막 설치 등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온도관리에서는 야간, 새벽, 오전, 오후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벽면 윈치커튼이나 흡입구의 위치를 여러번 조정해 준다.

닭에게 직접적으로 온도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환기를 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3. 계사 내 · 외부 소독

겨울철에는 밀폐된 계사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계사외부에는 어느 정도 질병차단이 되지만 5월 정도 되면 계사를 개방시켜 키우기 때문에 인근의 질병감염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질병차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소독을 계사 내부뿐 아니라 계사 외부도 철저히 해야 하며 인근 농장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계군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특히 백신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입추도 서로 상의해서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입추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 호흡기 소리가 약하게 나면서 눈이 붓는 계군들이 25일령 전후로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환기불량에 의한 암모니아 가스 때문이다. 이는 전염성이 강하다고들 하는데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기보다는 계사전체 환경이 암모니아가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 계군이 일제히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을 다 열어놓고 키우는데 무슨 암모니아 가스냐고 반문하는 농장이 많은데 필자가 그런 농장을 방문해서 계사 가운데에서 암모니아 가스 측정기로 측정해보면 40ppm 이상 나온다. 문을 열어주는 낮에도 이런데 문을 닫아주는 밤에는 어떨 것이며, 이런 환경하에서 30일 정도 계속해서 한 공간에서 사육되어지는 닭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겠다.

이럴 경우 계사내 공중에 분무소독을 해주면서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면 빨리 회복될 것이다. 계사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좋은 약도 효과가 아주 미약할 것이다. C